

“대불련 캠퍼스집중포교로 다시 비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정현, 이하 대불련)가 12월 1일~2009년 3월 11일을 캠퍼스 집중포교기간으로 선포하고 대학 내 불교활성화에 나섰다.

‘대불련의 비상’을 주제로 마련된 캠퍼스 집중포교기간은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기념하고, 대학교 신입생 입학시즌을 대비해 마련됐다. 대불련은 이번 기간활동을 통해 대학생불자들의 단합과 결집을 꾀하고, 대불련 조직 활성화와 재정 시스템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포교기간 동안 대불련은 신입생 입학에 앞둔 각 대학캠퍼스 일정에 맞춰 교내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대불련 연간 활동을 담은 사진 게재와 리플렛 배포, 포스터 게재, 동자승 코스튬 홍보활동 등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동아리 가입기간에 맞춰 펼친다.

또한 대불련 의식 고취를 위한 기

도정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서울 대불련 중앙법당 1000매 정진을 시작으로 매일 대전·공주·대구·광주·경남 등 전국대학 대불련 법당에서 108매 정진과 기도가 진행된다. 특히 열반일인 3월 11일에는 집중정진 및 3000매 정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불련 김정현 회장은 “사립대학 대부분이 개신교 재단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현실에서 대불련 회원들은 일심단결해 불법홍포에 앞장서겠다”며 “보다 역동적인 캠퍼스포교의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집중포교기간중인 12월 28일에는 47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장후보로는 대불련 대전지부장 이경환 씨(충남대, 25)가 단독 입후보했다. (02)732-0239

노덕현 기자

“네모의 꿈 만들기”

선우어린이집, 아름다운동행 소액모금캠페인 첫 동참

금융한파와 불경기로 모두가 힘들 때, 최근 탤런트 문근영 씨와 축구스타 홍명보 씨가 각각 8억 5000만원, 6억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세계적인 배우 성룡이 7월 3일에는 기부 천사 가수 김장훈 씨에게 응원편지와 기부금 1만 달러를 전달하고 전 재산 4000여만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스타들의 ‘나눔 바이러스’가 동심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 서울 도곡동 선우어린이집(원장 정정옥)이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이 주최하는 소액모금캠페인에 처음 동참해 관심을 모았다.



11월 28일 서울 도곡동 선우어린이집에서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소액모금캠페인 ‘네모의 꿈 만들기’ 제1회 저금통 전달식이 개최됐다.

11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도곡동 선우어린이집에서 소액모금캠페인 ‘네모의 꿈 만들기’ 저금통 전달식이 개최됐다. 저금통 모금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도록 좋은 곳에 써주세요”라고 말하면서 3개월 동안 모은 자신의 저금통을 전달했다.

정정옥 원장은 “선우어린이집은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선우어린이집이 처음 기부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모금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불교계의 활발한 기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소액모금캠페인 ‘네모의 꿈 만들기’는 ‘기부’ ‘나눔’ 실천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한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8월 서울 교계 어린이집 82개소와 유치원 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종이저금통 3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아름다운동행 원석준 팀장은 “어린이들의 참여는 세상을 변화

시키는 밑거름”이라며 “어려운 저금통 모금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소망과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히 쓰겠다”며 전국 교계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확대 시켜나갈 계획인 ‘네모의 꿈 만들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02)737-9595 www.thenanum.org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불교문화 학생다운 정진 아쉬워”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창립 27주년 종합 시상식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는 창립 27주년을 맞아 12월 5일 오후 6시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종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3회 불교청소년문화상에 △시 부문 오수지(광주보문고 3) ‘아버지의 가방’ 외 1편 △시조 부문 장소영(부산해동중 3) ‘새벽’ 외 1편 △단편소설 부문 조민주(부산해동중 3) ‘별뿔별’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제3회 불교아동문학 작가상은 △동시 부문에 박방희(아동문학가)씨의 ‘하늘가람’ 외 1편 △동화 부문에 정명숙(유석초등학교)교사의 ‘할미새의 노래’ 외 1편, 제1회 불교청소년포교저작상에는 △아동도서 부문에 임정진 <내 친구 까까머리>·김재원 <풍경이 너도 진듯개니?> △유아도서 부문 정수일 <춤추는 스님>이

수상했다.

제1회 대한민국찬불가요대상에는 △가창부문에 정목 스님 ‘바람부는 산사’, 정향숙 ‘산사에 올라’, 성악가 이영구 ‘저 언덕’ △작곡부문에 이달철 ‘우리도 부처님같이’, 오해균 ‘달아보세요’, 조영근 ‘금강경’, 정유태 ‘착한 아이 예쁜 아이’ △작사 부문 지성 스님 ‘부처님 향기가’ 선정됐다.

제4회 불교아동문학 신인 문학상은 ‘우리 부처님’ 외 1편으로 영경희 시인이 당선돼는 영광을 누렸다.

심사위원들은 종합심사에서 “총 1207편의 응모작품에서 불교 아동 및 청소년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깊은 신심이 느껴졌으나 지나친 기교와 청소년답지 않은 관념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상연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佛音 흥포로 불국토 구현하겠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 창립 17주년 기념법회 열려



대한불자가수회는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성료했다. 사진 가운데는 명국환 회장과 혜종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음성 포교사로서 불교 대중화를 선도해 온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명국환)는 12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창립 17주년 기념 법회를 열었다. 명국환 회장(76)은 격려사를 통해 “대중가요가 이미 저속해져진 오래다.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전통 가요를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대한불자가수회 총재)은 “광명진언이야말로 대한불자가수회의 원력을 두루 비추는 주문이다. 명실 공히 불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 말씀을 노래해 온 포교사로서 대중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맑고 향기로운 의지의 만남으로 대한불자가수회 활동이 불법으로 승화 되도록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한불자가수회가 뽑은 포교사 대상을 수상한 조계종 포교사단 강홍원 사단장은 “불교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포교사단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포교원장상을 수상한 이자연 씨(히트곡 ‘참랑참랑’)는 생활불교를 실천수범한 포교가 수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

를 인정받았다.

대한불자가수회는 ‘전국불자노래자랑’을 7년째 진행하고 있다. 후원은 생활불교를 실천수범한 포교가 수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

정법회거사님, 캄보디아서 자비행

창립 43주년 기념해 11월 23일~25일

조계종 최초의 등록 신행단체인 대구 정법회거사님(회장 남두희)이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캄보디아에서 자비행을 펼쳤다.

정법회거사님은 11월 23~25일 캄보디아 시엠티에서 동북 방향에 위치한 반데스레이군 품다에마을에서 지역 유지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우물 22개 준공 및 기증식을 가졌다. 거사님은 또 학생단체복 1500벌과 학용품 2000점, 칫솔 등 생활품 2000점, 구충제 3000여 점을

품타에 초등학교와 프롬 북 초등학교, ‘아름다운 세상’ 고아원과 주민들에게 보시했다.

로타리봉사회 남안웅 회장 등 회원 6명과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50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고 귀국한 남두희 회장은 “재작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세계 5대 빈국인 캄보디아에 우물파주기 사업과 생활필수품 전달을 위한 보시활동을 전개했다”며, 지속적인 자비행을 발원했다.

김성우 기자

어르신 위한 황룡가요콘서트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는 11월 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효잔치-황룡가요콘서트’를 개최했다. 복지기금마련 및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 성공개회기원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황룡사 주지 무원

스님, 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한나라당 이학재 국회의원, 권경상 총무실장(문화체육관광부), 홍종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김진성 기자

불교 상장례 인력 양성 본격 막 올라

제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개강법회 봉행

최초의 불교 상례 전문가 양성 코스가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11월 29일 중앙신도회관에서 제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증명법주주 나선 인목 스님(봉선사 주지)을 비롯해 김규범 부회장(중앙신도회), 홍경희 이사(불교인재개발원)와 교수 및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목 스님은 개강법회에서 “불교 생사관의 사회적 접근성이 빈약해 불자들이 실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며 “노후에 안식할 불교노인요양원, 호스피스를 담당할 불교 중병 노인 병원, 임종의식을 맡은 불교 상례 서비스, 납골당과 자연장 등 사찰 불안시설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의 불교 상례 전문가 양성 코스는 8개월 동안 160시간 교육 과정으로 불교 상례 이론과 실습, 장례법규와 공중보건학, 불교장례시절 관리론, 현장학습 등을 배우게 된다. 졸업 후에는 장례관련 업체, 사찰 장묘시설, 사찰 상호회 등의 운영 및 관리자 등으로 진출하게 된다. (02)723-0444 조동성 기자

재교부 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종단에 정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 하신 몇몇 스님들의 노고로, 2007라 1580에 의거 임시종정으로 김윤철(향운)스님으로 결정받았으나, 배정환(해인)스님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9월 7일자 우리불교신문, 9월 10일자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9월 17일자 현대불교신문 등 두차례에 걸쳐 재교부 공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재교부를 받지 않은 종도들이 있습니다. 중무행정 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3번째 재교부 공고합니다. 기간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범 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신분증
2. 기 간 :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 까지
3. 수수료 : 총무원으로 문의
4. 문의처 : 02)735-0501~0502

임시 사무총장 도봉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임시 총무원장 용일
임 시 종 정 향운

중앙종회의원 공고

1. 대한불교원효종 서울고등법원 2007라 1580 김윤철(향운)스님께서 임시종정으로 선임 되었으므로 종헌 제 5장 중회 제 22조 중앙종회의원을 중법중종회법으로 선출한다.
2. 중회법 제 1조, 종헌제 22조에 의하여 중회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회법 제 2조 중회의원수는 25인 이내로 하고 각 교구의원수는 교구종도수에 따라 총무원장과 중앙종도회장의 합의로 중정이 결정한다.중회법 제 3조, 총무원장은 의원선거공고가 있는 즉시 각교구 중무원별 중회의원 배정수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중회법제 3장, 의원의선거 제 6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중회법 제 7조종도로서 중회의원 입후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2,3,4항, 중회법 제 8조, 중회의원 선거는 각교구 선거위원회에서 전형으로결정한다. 중회법 제 9조, 각교구 선거위원장은 선거결과를 각기 본인에게 통지하고 다음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 3 본인의 이력서, 가족증명서, 취임승락서, 전형소서. 중회법 제 1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교구 선거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선거결과를 심사한 후, 그 적부를 판정한다 중회법 제 12조, 중회의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공고로 확정된다.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임 시 종 정 향운